



Hana Market Weekly

달러/원·엔·유로환율·금리·주식

자금시장영업부

2022. 12. 26

서 정훈 연구위원

본 자료의 내용은 집필자 개인의견이며, 하나은행의 공식견해와는 무관합니다. 또한 본 자료는 현 경제상황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된 기초 자료로 투자권유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며, 자료는 신뢰할 수 있는 정보에 근거해서 작성된 것이나 정확성 등을 보증한 것은 아닙니다. 본 자료는 당행의 저작물이며 사전승인 없이 본 자료의 전체 또는 일부를 인용하거나 복제하여 사용하는 것을 금합니다.



주간 달러/원 동향(12/19-12/23) 및 전망

◀서울외환-USDSP-체결> 2022/10/31 종:1,421.10 ▼0.40 -0.03% 시:1,423.00 고:1,423.00 저:1,419.50

- 12.19일 1,302.90(-2.5): 네고 및 엔화 강세 속 하락. 연준 인사들 발언에 상승 출발 후 1311.9원까지 고점 높임. 이후 BOJ 통화완화 정책 전환 기대감에 따른 엔화 강세와 연말 네고 물량 유입하면서 1296.8원까지 저점 낮춘 후 위안화 약세 속 낙폭 일부 반납에 1300원 근처 흐름 이어감.
- 12.20일 1,289.6(-13.3): BOJ 깜짝 발표 후 엔화 매수세 연동한 달러 약세에 하락. 장 초반 위험회피 속 1305원까지 고점 높임 이후 증시 낙폭 축소하자 1300원 근처로 레벨 낮춘 후 등락 이어감. 정오 경 일본은행 장기국채 상단 2배 확장 발표에 엔화 매수에 따른 약달러 속 낙폭 확대.
- 12.21일 1,285.7(-3.9): BOJ 깜짝 발표 여파 계속되며 약달러에 하락. 장 초반 BOJ YCC 완화 발표 여파 계속되며 1280원대 초중반에서 전장 대비 하락 흐름 지속하다가, 달러-엔 반등하자 1289.7원까지 고점 높임. 이후 네고 유입 속 1283.2원까지 저점 낮추는 등 1280원대 중반 흐름 이어감.
- 12.22일 1,276.2(-9.5): 위험선호 및 조선업체 수주 소식에 하락. 장 초반 결제 유입에 1285.9원으로 고점 높이며 상승 시도함. 이후 아시아 증시 호조와 엔화 강세, 조선업체 수주 소식, 네고 유입에 1273원까지 꾸준히 레벨 낮졌으나 장 후반 결제 유입에 낙폭 일부 반납함.
- 12.23일 1,280.8(+4.6): 금주 약달러 되돌림과 증시 하락에 상승. 미 경제지표 호조에 따른 미국채수익률 반등에 장 초반 1290원으로 고점 높인 후 역의 달러 하락 속 1280원대 초반으로 빠르게 레벨 낮춤. 이후 증시 낙폭 유지에 지지력 유지하다가 장 후반 위안 환율 하락하자 낙폭 확대.



주간 달러/원 동향

- 주초, 달러-원은 BOJ 깜짝 발표 이후 엔화 매수세에 따른 약달러에 하락. BOJ는 금리결정 회의에서 무제한 국채 매입 상단을 기존 0.25%에서 0.5%로 확대한다고 발표했는데, 예상치 못했던 완화정책 일부 변경에 엔화 매수세 속 글로벌 달러 약세 나타냄.
- 주 중반, BOJ 발표에 따른 엔화 강세와 약달러 여파 계속되며 달러-원은 1270원대까지 추가로 저점을 낮춤. 조선업체 수주 소식과 네고 유입, 아시아 증시 호조 등 위험선호 심리 또한 환율 하락 요인으로 작용함.
- 주 후반, 미 경제지표 호조에 따른 미 국채수익률 상승과 약달러 되돌림 속 달러-원은 기술적 반등.

달러/원 전망

- 금주 달러-원은 연말 네고 등에 하락 시도 예상되나, 주요국 금융시장 휴장, 지난주 가파른 하락 이후 속도 조절 등에 낙폭은 제한될 전망. 연말 한산한 거래와 이슈 부재 속 뚜렷한 방향성 부재한 가운데, 약달러 흐름 계속되며 환율 상단 제한될 것으로 보임. 최근 가팔라진 달러-원 하락세를 따라 연말 앞두고 네고 활발해지며 환율 추가 하락 가능하다는 판단.
- 다만 중국 내 감염 확산에 따른 위안화 지지력 등에 환율 하단 지지될 것으로 전망. 중국내 사망자가 급증하고 중국 상하이 공장 생산 중단되는 등 중국 내 감염 심화되고 있는데, 이에 따른 글로벌 위험회피 및 위안화 약세는 원화에 약세 재료로 판단.

주간시가	주간고가	주간저가	주간종가	주간등락
1310.5	1311.9	1273.0	1280.8	-24.6

예상거래범위

1,265원 ~ 1,300원



엔·유로화 동향 (12/19~12/23)



유로화 동향

- 주초, BOJ의 통화정책 방향 선회 가능성 관측 등으로 매파적 연준 스탠스에도 달러화 보험세 영향에 따라 유로 강세 출발. 이어 BOJ의 전격적 YCC정책 범위 확대에 따른 달러 약세 전환으로 유로 강세 흐름 지속
- 중반 들어, 독일의 소비심리가 점진적 개선을 보임에 만 경기지표 호조 소식 등으로 강세 지속 흐름 이어간 양상
- 후반 들어, BOJ 통화정책 변경 요인이 달러 약세를 견인했으나, 유로화에 대해 다소 제한적이었던 가운데 미 3분기 성장률이 잠정치보다 개선된 것으로 집계된 영향이 연준 긴축 행보를 자극할 수 있을 것이란 측면이 달러 강세 흐름 반영하며 약세 전환. 이어 후반, 미 11월 PCE가 4.7% 상승하며 감소세 이어가면서 유로화의 달러 대비 상대적 강세 흐름 보이며 마감

주간시가	주간고가	주간저가	주간종가	주간등락
1.0592	1.0659	1.0573	1.0616	+0.0023

엔화 동향

- 주초, BOJ가 지난 10여 년간 고수한 완화정책 일부를 되돌릴 것이란 관측 등으로 강세 출발 후 일부 되돌림 되는 모습을 보임. 이어 BOJ의 초안화정책의 주요 변수였던 금리 상하한폭 확대에 따른 일본 국채 금리 상승에 따라 엔캐리 청산 움직임 확대 속에 엔화의 초강세 시현
- 중반 들어, 전일 BOJ 정책변화 영향 소화하는 과정 속에 과도한 엔화 급등의 일부 되돌림과 미 소비지표 호조에 따른 달러 강세 전환 속 엔화는 상승
- 후반 들어, BOJ의 수익률 범위를 상하 0.5%로 확대함에 따른 영향을 반영하며 미-일 금리차 축소 등으로 강세 전환했으나 미 경제성장률이 예상치를 웃돌며 따른 측면이 강세 흐름을 다소 제한한 형국. 이어 주 후반, 미 11월 PCE지표가 4.7% 상승에 그치며 시장 예상을 소폭 상회한 가운데 BOJ정책 영향을 소화하며 소폭 상승 흐름 마감

주간시가	주간고가	주간저가	주간종가	주간등락
136.7	137.4	130.5	132.9	-3.8



국고채 금리 및 주간 증시 동향 (12/19~12/23)



주간 국고채금리 동향

- 주 초반, 12월 FOMC이후 연준 위원들의 매파 성향 언급 등이 장기 구간 국고채 금리 상승에 영향. 반면, 단기 구간은 연말 거래량 실종 속에 외국인 투자자의 매도 강화 등으로 소폭 하락세 보이며 금리 커브의 스티프닝 현상 강화를 보임. 이어, BOJ의 YCC 변동 범위 확대를 통한 통화완화 정책 변화 시사 영향 반영으로 전구간 상승 흐름
- 중반 들어, 전일 일본은행 정책 변경 영향에 따른 급등 양상을 일부 되돌림 한 가운데, 수급상 내년 1분기 국고채 순발행 감소 소식 등에 따라 하락 전환
- 후반 들어, BOI 정책 변경 영향을 소화하며 전일 상승분 일부를 되돌림 하는 국면을 보인 가운데 기재부의 내년 1분기 감축된 국고채 발행 계획 공개 등이 수급 측면에 영향을 미치며 하락 지속 후, 주 후반, 미 11월 PCE 경제감 속에 외국인 국채선물 매도 영향 반영되며 상승 전환 마감

주간 증시 동향

- 주초, 2023년까지 인플레이션 리스크가 이어질 것이란 전망에 뉴욕증시 등 글로벌 투자심리가 냉각되는 가운데 기관, 외국인 투자자의 순매도 확대 등으로 하락 출발. 이어 연준의 매파 성향에 대한 우려가 투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 가운데 그동안 완화 정책의 보루로 여겨졌던 BOJ 마저 긴축 선회 시그널을 보냄에 따라 하락 추세 이어진 양상
- 중반 들어, 미국 주택지표 부진 등을 반영한 향후 경기침체 이슈가 부각된 가운데 외국인과 기관의 상반된 투자 공방 속에 소폭 약보합 흐름을 나타낸 국면
- 후반 들어, 전일의 미 경제 지표와 상반된 소비자 신뢰지수 개선에 따른 침체 이슈 완화 및 뉴욕증시 기업실적 개선 영향 등의 반영으로 상승 전환 후, 주 후반, 미 3분기 성장률 확정치가 종전보다 높아진 3.2%를 기록하면서 연준의 추가 금리 인상 우려 확산에 투자심리 위축 등으로 큰 폭 하락 전환하며 마감